

문제. ‘해녀’란 바닷속에 산소를 공급하는 장치 없이 들어가 해조류와 조개류를 캐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여성을 뜻한다. 해녀의 발상지는 제주로 추측되며, 약 2만 명으로 추산되는 우리나라의 해녀 대부분이 제주 해녀이다. 이러한 사회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제주의 고유한 언어, 제주어는 해녀와 관련한 단어가 다수 발달하였다.

다음은 제주어 단어와 그 뜻을 순서에 상관없이 나열한 것이다. 여기에 제시된 모든 단어가 제주 전역에서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곱숨비다	곶바위	곶좁수	물숨	새좁수	숨비다
애기좁수	우미바당	할망바당	헛물	헛숨	

- A. 나이 든 늙은 해녀를 위하여 구역을 설정해 놓은 바다.
- B. 나이 어린 해녀.
- C. 바닷가 주변의 바위.
- D. 비교적 가까운 바닷가에서 해산물을 따는 해녀.
- E. 숨을 죽이고 물속으로 들어가다.
- F. 우뚝가사리가 잘 자라서 해녀들이 즐겨 캐는 어장.
- G. 처음 물질을 하는 해녀.
- H. 해녀들이 깊은 바닷물 속으로 무자맥질해서 해산물을 캐는 동안에 참는 숨.
- I. 해녀들이 소라나 전복 등을 캐는 작업.
- J. 해녀들이 무자맥질했다가 해산물을 못 캐고 이내 수면으로 나오자마자 호흡을 조절해서 얼른 해산물을 캐러 다시 무자맥질하다.
- K. 해녀들이 바다 속 지형을 살필 목적으로 바닷물 속에 들어가는 일.

(1) 단어와 뜻을 알맞게 짝지어라.

(2) 다음은 추가적인 제주어 단어와 뜻풀이이다. 이들 역시 무작위순으로 제시 되어 있다. 알맞게 짝지어라.

고망좁수	곶좁다	곶바당	숨비들다	애기테왁
------	-----	-----	------	------

- L. 곶으로 접다, 배로 접치다.
- M. 깊은 물에서 미역 감을 때에 숨을 죽이고 물속으로 들어가다.
- N. 물 가까이에 있는 바다.
- O. 보통 때에는 작업을 하지 않다가 미역이나 우뭇가사리 채취를 시작하는 한고비에만 바다에 나타나서 작업하는 해녀.
- P. 해녀 연장의 한 가지인 자그마한 테왁으로, 주로 해녀작업을 익히는 소녀 해녀들이 쓴다.

△ 제주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한국어의 한 방언으로 분류되기도 하며, 별개의 언어로 구분되기도 한다. ‘제주어’라는 용어는 후자의 의견을 함의한다. 최근에는 사용 인구의 감소로 2011년 유네스코 ‘사멸위기 언어’ 5단계 중 4단계로 등재되는 등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이 문제에 사용된 제주어 단어와 뜻풀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에서 발간한 『개정·증보 제주어사전(2009)』에서 발췌한 것이다.

우뭇가사리는 바닷말의 일종으로, 일정 기간에 때맞추어 캔다면 그 소득이 보장되므로 우뭇가사리를 캐는 것은 해녀들에게 안정적인 작업이다. 반면 다른 해산물의 경우 그 소득이 보장되지 않아 헛될 수 있다. 물질은 해녀가 바닷속에 들어가 해산물을 캐내는 일이다. 무자맥질은 물속에 들어가 팔다리를 움직여 떴다가 잠겼다가 하는 일이다. 테왁은 해녀가 물질을 할 때 가슴에 받쳐 몸이 뜨도록 돕는 공 모양의 기구이다. 과거에는 박의 속을 파내어 만들었다.

—김강래



그림 1: 해녀 (© 해녀박물관)



그림 2: 테왁 (© 문화재청)

문제. 다음은 마린드어 명사와 그 한국어 번역을 순서에 상관없이 나열한 것이다.

anem akek, ye, namuk tanamu, anim tagi, namik, uknaanem, yanidyanid, abnaanum, namakid tanami, yeŷe
가벼운 남자, 강한 사람들, 나이든 동물들, 나이든 여자 사촌, 날마다, 남자 겁쟁이, 비, 비가 내리는 동안, 사촌들, 여자 도둑

- (1) 한국어로 번역하여라: **abnaanum, anum tagu, ukna, yanid.**
- (2) 마린드어로 번역하여라: 가벼운 여자 겁쟁이, 강한 남자 사촌, 나이든 남자 도둑, 도둑질.

△ 마린드어는 아넘어족에 속하며, 아라푸라해 연안과 콤베강을 따라 인도네시아에서 약 7000-9000 명이 사용하는 언어이다. 문제에서 사용된 것은 서부 해안 방언이다.

y는 ‘ㄱ’을 마찰하며 내는 소리이다.

—김강래, 제1회 외솔 언어학 올림피아드 #1